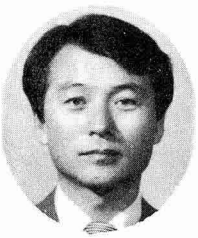
우리회사의 산업위생업무



흥아공업유한회사
안전보건과장
김 진 복

당사는 1951년도에 설립하여 1978년에 현위치로 확장 이전한 고무제품 제조업체로서 넓은 공간에 작업환경도 비교적 깨끗한 편이다.

내가 산업위생 업무를 시작한 것은 10년 전이었으나 그때는 산업위생의 개념조차도 모르고 단순히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건강진단의 계획 및 실시 그리고 산업재해에 대한 후속처리 만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도 모르는채 순조롭게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1977년 1월 어느 일간지에서 "여공집단 피부중독으로 1명사망 10명입원"이란 기사를 읽고 산업위생의 범위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비록 산업위생에 관한 지식은 없으나 이처럼 많은 인명피해는 기업주나 관리자(작업책임자)의 무지 또는 방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용제를 사용하고있는 우리 회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취약점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기로 결심하였다.

막상 결함 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발췌했으나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좋은 착상이 떠오르지 않았다.

과연 산업위생 업무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과 시행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많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아래 사항을 먼저 해결하기로 하였다.

첫째, 작업의 흐름도(공정)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둘째, 환경에 관한 전문지식을 터득해야 한다.

셋째, 직업병 발생경로를 알아야 한다.

넷째, 관계법령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다섯째, 종적 횡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에 나가 생산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하면서 작업의 공정을 익히고 보건관리자나 전문가들에 의해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직업병 발생요인을 배웠다.

다음에는 종적 횡적인 협조 사항에 관해서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잘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이제는 미숙하나마 결함에 대한 시설개선의 계획서를 만들어 실행 가능한 것부터 해결하기로 하였다.

용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작업장에 나가 작업자들과 면담을 해보니 코속에 염증이 생겨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인근에서 간접작업을 하고있는 사람들도 두통 및 불쾌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용제의 증발을 배기시켜 작업장에 확산은 물론 직접작업하는 사람에게도

흡입되지 않도록 건조대를 설치키로 하여 81년도에는 대당 약 5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건조대 16대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목적을 달성하고 보니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의욕도 고조되어 또 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때 산업안전 보건법이 시행되어 사업주나 간부들에게 산업보건 업무의 필요성을 주입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고무제품 제조공정에서는 C_6H_6 (Benzene)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많은 제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우리 회사에서도 역시 많은 량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C_6H_6는 호흡기 외에도 피부로 흡수된다는 사실과 맹독성을 가진 무색액체로서 기중농도가 1500 ppm 이상일때는 급성중독을 일으키며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준다는 것도 알았다.

그때부터 독성을 줄이는 방법과 대체품개발 또는 이러한 물질을 전연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작업이 가능한 방법을 개발토록 관계부서에 협조를 의뢰했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한 줄이고자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지판을 작업장에 부착하고 취급자가 스스로 주의하도록 계몽하였으며 취급방법 및 긴급방제에 관한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용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였다.

양질의 가스마스크가 없어 부분적인 국소배기 장치를 하고 보호안경 고무장갑 고무앞치마등 보호구도 지급하였다.

드디어 83년에는 우리회사 기술진에 의하여 벤젠작업 시스템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성공하여 또 하나의 개가를 올렸던 것이다

84년도에도 분진이 가장많이 발산되고있는 작업장에 집진장치 및 특수작업방법을 도입하여 분진없는 작업장을 만들기로 하고현재 공정 60%의 진척을 보여 곧 완성될 예정이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정기건강진단 실시결과 유소견자로 판명된 사람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명단을 작성하고 3개월마다 체크하여 완전히 회복될때까지 작업장 이동이나 휴직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직업병 예방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남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도 산업위생 담당자는 바쁜 일손을 멈추지 않는다.

유모어쏭

" 부자합창 "

평화로운 토요일 늦은 오후 변두리 아파트 4층 거실에서 50대 아버지가 소년단 아들에게 노래를 배우는데 ……

아들왈 아빠는 "앗 사" 반주만 하랜다.

어떻게? 음절마다 "앗 사"하고.

그럼 불러볼까? 그래요.

"마리아 앗사 마리아 앗사
사랑하는 마리아 앗-사
마리아 앗사 마리아 앗사 사랑하는 마리아
앗사라비아 콜롬비아
탐다리 잡고 꼭꼬댁
쥐다리 잡고 찍찍찍
개다리 잡고 멍멍멍
사랑하는 마리-아"

부자합창을 신나게 듣던 어머니,

저녁밥을 짓다가 신들린 사람처럼 밥주걱 장단으로 디스코를 추어댄다. 연분홍 저녁노을이 집안 가득히 스며든다.